

『유암총서』의 내용과 '문순득' 재조명

최성환(신안문화원 사무국장)

< 순 서 >

1. 머리말
2. 『유암총서』의 주요 내용
3. 표해록의 주인공 '문순득'에 대한 재조명
4. 맺음말

1. 머리말

- 명 칭 : 『유암총서(柳菴叢書)』
- 규 격 : 세로 24cm, 가로 15.5cm.
- 수 량 : 1책 1권 95면
- 저 자 : 이강회, 정약전
- 소 유 자 : 문채옥

『유암총서』는 조선 후기 대학자 정약용의 제자였던 이강회(李綱會)¹⁾가 1818년~1819년 사이에 현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에

1) '이강회'에 대해서는 안대회 교수의 논문 「다산(茶山) 제자 이강회(李綱會)의 이용후생학(利用厚生學)」을 참조바람. 본고에서는 생략하였음.

머물면서 집필한 문집이다. 우이도 주민 문순득의 표류경험담을 토대로 손암 정약전이 저술한 「표해시말(漂海始末)」이 서두에 실려 있고, 이강회의 저술로 선박제조에 관한 국내 최초의 논문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운곡선설(雲谷船說)」을 비롯하여 이용후생의 정신에 입각하여 수레를 만들어 보급할 것을 주장한 「거설답객난(車說答客難)」·「제거설(諸車說)」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도서 해양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의 특성을 잘 담아내고 있다. 섬에 사는 어민의 표류기,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에 관한 이야기 등 가장 신안적인 사료(史料)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유암총서』의 내용과 당시 우이도에 살던 ‘문순득’이라는 인물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유암총서의 수록내용>

제목	저자	성격	분량
漂海始末	정약전	우이도 주민 문순득의 표류담을 듣고 표류일정과 보고 들은 풍물, 언어 등을 체계적으로 저술한 표해록.	42면
雲谷船說	이강회	우이도 주민 문순득의 구술을 토대로 우리나라 선박 제조의 단점을 외국의 배와 비교 분석한 글.	30면
車說答客難	이강회	국가경제를 위해 수레를 제작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한 논문 형식의 글.	19면
諸車說	이강회	수레 사용의 효용성에 대해 컬럼 형식으로 논한 글.	4면

2. 『유암총서』의 주요 내용

1) 우이도 어상(魚商)의 표류기 「표해시말」

「표해시말(이하 표해록으로 칭함)」²⁾은 200여 년 전 우이도에 살고 있던 문순득이 1801년(순조1) 12월 태사도(흑산도 인근)에서 흥어를 사 가지고 돌아오던 중 표류를 하게 되어, 1805년 1월 8일에서야 고향에 다시 돌아오게 된 일을 기록한 일종의 표해록이다. 이 기록은 당시 우이도에 유배와 있던 정약전에 의해서 집필되었는데, 그 내용은 문순득의 표류과정과 그가 다녀왔던 유구(琉球, 현 일본 오키나와)·여송(呂宋, 필리핀) 지역의 풍속·가옥·의복·선박·토산·언어 등에 관한 것이다.

한동안 이 「표해록」은 원본이 유실되어 정약전이 저술했다는 이야기만 전할 뿐 그 전체 내용을 알 길이 없었다. 그러나 이강희가 필사해 놓은 『유암총서』라는 문집이 발견되면서 처음으로 학계에 전문(全文)이 알려지게 되었다.³⁾

2) 본문의 제목은 「표해시말」로 표기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표해록」으로 통칭되며, 『유암총서』의 다른 글(「운곡선설」)에서도 이 글을 「표해록」으로 칭하고 있다.

3) 『유암총서』의 내용 중 「표해시말」 부분은 이미 1994년 신안문화원에서 『문순득의 표해록(최덕원 저)』이란 제목으로 단행본이 발간된 바 있다. 또 일본인 언어학자 다와전진일랑(多和田眞一郎)에 의해서도 비슷한 시기(1994년 6월 10일)에 『유구여송 표해록의 연구』라는 제목으로 일본에서 출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암총서』의 전체 내용과 문집의 저자가 알려지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 채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번 향토사료지의 발간을 통해 『유암총서』 전체 내용이 재조명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해록과 관련해서는 최부의 표해록4)과 장한철의 표해록5)이 널리 알려져 있다. 정약전의 표해록은 앞선 두 저서에 비해 년대는 한참 후대에 속한다. 그러나 앞의 두 저서는 중국 혹은 일본 한 곳만을 표류한 기록인데 반해 본 표해록은 유구(일본)·필리핀·중국 3개국을 표류한 기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200여 년 전 언어를 우리말(조선)과 일본어(유구), 필리핀어(여송)를 비교하여 정리한 자료가 첨부되어 언어학적인 입장에서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흥어를 판매하던 당시 우이도 주민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정약전이 저술하였다는 점에서 타 표해록과 차별화된다. 서민의 눈에 비친 외국의 풍물이나 선박, 언어에 대한 관심도가 실학정신으로 무장한 정약전에 의해 체계적으로 저술되었다. 이 「표해록」을 정약전의 「표해록」이라고 해야 할지 문순득의 「표해록」으로 칭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유명한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도 마르코폴로가 직접 쓴 게 아니라 체험담을 들려주고 다른 사람(루스티 첼로)이 대필을 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순득의 「표해록」으로 불려지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문순득이 오히려 양반이나 학자가 아닌 평범한 서민이었기에 다른 사람들 같으면 쉽게 지나쳤을 생활풍속이나 언어 같은 생활사 자료들이 「표해록」에 잘 남아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표해록」은 바다를 지키며 살아가는 도서 해양민의 시각과 먼 외딴 섬에 유배

4) 조선 성종 때의 문신 최부(崔溥:1454~1504)가 중국에 표류되었을 때의 체험을 1488년에 편찬한 책.

5) 제주 출신 장한철(張漢喆)이 일본 유구열도 등지를 표류하고 온 뒤에 1771년에 쓴 일기형식의 표류기.

와 있던 대학자의 높은 식견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탄생한 명작(名作)임에 틀림없다.

2) 선박제조에 대한 조선시대 연구논문 「운곡선설」

「표해록」이 우이도 사람 문순득과 정약전의 합작품이라면, 「운곡선설(雲谷船說)」은 문순득과 이강회의 합작품이다. “이 글은 문순득의 말에서 나오고 나의 붓에서 이루어 졌다”고 밝히고 있다.⁶⁾ 외국의 선박과 우리나라 선박의 장단점을 비교해 놓은 「운곡선설」은 선박에 관한 전문적인 글로써는 국내에서 처음 발견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강회는 다산 정약용의 강진 유배시절 제자로서 스승인 정약용이 해배(解配)되어 강진을 떠나자,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이 유배생활을 하다 생(生)을 마감한 우이도로 들어왔다. 이때 자연스럽게 정약전이 유배시절 도움을 받았던 문순득과 교류하게 되면서 정약전이 「표해록」에서 미처 상세히 기록하지 못한 선박에 대한 부분을 보충하여 「운곡선설」을 지었다.⁷⁾ 물론 자료를 제공한 것은 문순득이었고, 문순득이 외국(오키나와, 마카오, 필리핀, 중국)에서 견문(見聞)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완성하였다.

혹자는 조선(朝鮮)의 선박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논문이 발견되었다고 했을 때 이 논문이 우리나라 전통 배의 우수성을 강조

6) 「운곡선설」의 말미에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본 책 국역문 132쪽).

7) 「운곡선설」의 말머리에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히고 있다.(본 책 국역문 131쪽).

한 글이기를 내심 기대하는 경향도 있었다.⁸⁾ 그러나 이 논문의 내용은 그와는 정반대로 외국과 조선의 선박을 비교하여 조선 선박 제조기술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이용후생학의 측면에서 조선 선박이 지니는 취약성을 논하고 있다. 철저하게 실학정신에 입각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선박의 구조별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조선후기 동아시아 국가들의 선박제조 기술과 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동안 정약전이 저술한 「표해시말(표해록)」만 알려져 왔는데, 문순득의 『표해록』은 정약전의 글과 이강희가 저술한 「운곡선설」이 합하여져야 완전한 형태의 『표해록』이 된다. 정약전의 「표해시말(표해록)」이 학계에 알려진지 1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운곡선설」의 내용이 공개된 것은 다소 뒤늦은 감도 있고, 왜 진작 알려지지 못했을 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

앞으로 이 자료가 선박을 연구하는 전공자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전통 선박을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3) 수레이용에 대한 이강희의 주장 「거설답객난」-「제거설」

「거설답객난(車說答客難)」과 「제거설(諸車說)」은 우리나라에서 수레를 사용할 경우 생기는 장단점과 필요성을 역설한 것

8) 조선시대 선박에 대한 논문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대부분 언론사의 반응은 그러한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느껴졌다.

으로 『유암총서』에 수록된 또 하나의 빛나는 저작이다. 「거설답객난」은 논문 형식의 글이고, 「제거설」은 지금의 컬럼 형식의 글로 보면 좋을 듯 하다.

특히 「거설답객난」에서는 수레 제조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이강희 자신의 주장을 설파하기 위해 가상의 토론자 ‘객(客)’을 등장시킨다. ‘객’은 우리나라가 수레를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유와 사용시 발생할 문제점을 제기하고, 저자인 이강희는 ‘답(答)’을 통해 국가의 이익과 민생을 도모하지 않은 채 개인의 부귀영화에만 관심이 있는 기득권층을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은 서술 방식이 매우 독특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흥미와 관심을 자연스럽게 유발시킨다.

단순히 수레 사용의 필요성을 역설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라도 지역 사례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어서 조선후기 사회상을 연구하는데도 중요한 단서들이 담겨있다.

필자는 과문한 탓에 이 글을 통해서야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도 국내에서 수레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실학과 관련해서 그 실체가 모호하게 느껴지던 조선후기 ‘이용후생(利用厚生)’이라는 학풍(學風)도 이 글을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한 지방 학자의 작은 문집에서 이런 글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 놀라울 따름이고, 중앙 정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섬에서 이러한 학문적 성과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면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한다.

3. 표해록의 주인공 ‘문순득’에 대한 재조명

『유암총서』에 수록된 저술들은 모두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사료로서의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책 자체가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집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과 함께 이 문집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재조명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선 『자산어보(茲山魚譜, 현산어보)』를 집필하여 신안군의 대표적인 역사인물이 된 정약전의 경우도 아직 미 발견된 저작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집의 저자인 이강회는 그동안 학문적 수준이 알려져 있지 못했지만 이 문집을 통해서 재평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방문화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인물은 「표해록」의 실제 주인공인 ‘문순득(文淳得, 1777~1847)’이다.

문순득은 당시 우이도(현 신안군 도초면)에 사는 주민이었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우이도에서 살고 있다. 비록 『유암총서』에 남겨진 글들이 정약전과 이강회의 붓에 의해서 완성되었지만, 실제 저자는 문순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이도에 살던 문순득은 1801년 12월에 대흑산도 남쪽에 있는 태사도로 홍어를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 표류하였다. 이미 200여 년 전에도 흑산 홍어는 명성이 높았던 모양이다. 1801년에 표류해서 1805년 1월 8일에 고향에 돌아오게 되므로 햇수로 5년, 일수는 만 3년 2개월 동안이나 표류생활을 하게 되었다. 지역별 표류기간을 살펴보면 오키나와에서 8개월 17일, 필리핀에서 8개월 28일, 중국지역에서 13개월 26일을 체

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순득은 서책을 쌓아 놓고 학문에만 몰두하는 학자도 아니고 지방에서 행세하는 유생(儒生)도 아니었다. 섬에 살면서 장사(흥어 상인)를 업으로 삼고 있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암총서』에 담긴 문순득의 표류(漂流) 관련 기록은 더욱 가치 있고 새로운 의미를 더해준다.

이강희는 문순득을 일컬어 “비록 문자(文字)에 능한 것은 아니나 사람됨이 총명함과 재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 탁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선박을 비교한 「운곡선설」의 경우 뱃일에 익숙한 문순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한 능력을 인정한 정약전은 그에게 ‘천초(天初)’라는 자(字)를 지어 주었다. 우리나라 개벽 이래로 해외 여러 나라를 이 사람이 최초로 보았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 그의 존재는 멀리 강진에 있던 정약용에게까지 알려졌다. 문순득이 표류하고 돌아온 뒤 비로소 자식 하나를 낳았는데 아버지의 재기를 이어받았다는 의미로 정약용이 이름하기를 ‘여환(呂還)’이라 하였다는 기록도 등장한다.⁹⁾ 문순득의 자(字)는 정약전이 짓고, 그 아들의 이름은 정약용이 지어준 것으로 보아 손암·다산 형제와 매우 긴밀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흔히 문순득의 표류경험담을 구술로 듣고 정약전이 표해시말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분명 표류시절 무엇인가 기록해 온 것들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히 기억만을 가지고

9) 문순득에 대한 언급은 「운곡선설」 말머리와 말미에 남아 있다. (본 책 국역문 106~108쪽, 132쪽 참조).

구술했다고 보기에 그 내용들이 너무나 소상하고 생생하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아래의 기록은 그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전략]나주(羅州) 흑산도(黑山島)¹⁰⁾ 사람 문순득(文順得)이 표류되어 여송국(呂宋國)에 들어갔었는데, 그 나라 사람의 형모(形貌)와 의관(衣冠)을 보고 그들의 방언(方言)을 또한 기록하여 가지고 온 것이 있었다.[후략]

-1809년(순조 9) 6월 26일-

분명 문순득은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기약 없는 먼 표류의 여정 속에서도 자기 방식대로 표류기를 작성해 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록을 토대로 정약전의 「표해시말(표해록)」과 이강회의 「운곡선설」이 탄생할 수 있었다.

또한 문순득은 표류인에 대한 조선 정부의 관대하지 못한 정책도 비판하는 시각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이 외국을 떠돌면서 여러 나라의 은혜를 입어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정작 국내에 표류해서 수년째 “제주도에 갇혀 있는 여송인을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땀이 솟는다”는 기록¹¹⁾을 남겼다.

당시 정부의 표류인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한 실록의 같은 기사에서 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1801년 가을 외국인 5명이 표류하여 제주(濟州)에 도착하였는데, 말이 통하지 않

10) 지금의 우이도를 “흑산도, 소흑산도”라고도 칭하였다. 때문에 흑산도로 유배된 사람들은 대흑산도에 들어가지 않고 우이도에 머물기도 하였다.

11) 「표해시말」에 언급되어 있다.(본 책 국역문 78쪽).

아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¹²⁾ 9년 동안이나 자기 나라에 되돌려 보내지를 못했다. 그러던 중 문순득(文順得)이 표류되어 외국에 다녀오면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기록한 것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문순득을 불러 이 외국인들과 대면을 시켰다. 문순득이 이 사람들의 용모와 복장을 보니 자신이 여송국에 갔을 때 기록했던 것과 대략 서로 비슷하였으므로, 여송국의 방언으로 이들과 문답(問答)하니까 절절이 딱 들어맞았다는 것이다. 그러자 “여송국에서 표류해 온 사람들이 감격에 겨워 미친 듯이 정신을 못 차리고서 울부짖었다”고 하는데, 그 결과 비로소 여송국 사람임을 알게 되어서 이 사람들을 자신들의 나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이때가 여송인들이 우리나라에 표류한지 9년만의 일이었다. 우리 정부가 외국의 표류인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고, 폐쇄적이었는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한편 이 실록의 기사를 보면 문순득은 2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여송어(필리핀)를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외국에 표류해서 돌아온 지 5년이 지난 시점이었음에도 여전히 여송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이채롭다.

문순득이 평범한 어상(魚商)이었지만 이러한 능력을 갖추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활터전이 되었던 ‘우이도’라는 섬의 공간적

12) 실록기사에는 “이름을 쓰게 하였더니 단지 막가외(莫可外)라고만 하여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막가외’는 ‘마카오’를 뜻한다. 문순득이 남긴 「표해록」의 언어 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당시 조선 정부는 마카오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이 표류인들은 9년 동안이나 조선 땅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배경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다. 당시 우이도는 흑산권에 속한 유배지로서 학식이 높은 유명인사들도 유배를 왔다. 또 외국 선박이 빈번하게 표류해 오므로 인해 이를 통해 외국인과 외국 문물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땅이었다.

먼저 유배인과의 관계이다. 아무리 높은 관직을 지낸 명문가의 사람이라도 외딴 섬에 유배를 오게 되면 그 지역 유지들의 도움을 통해 고난한 유배지에서의 생활을 견뎌야 했다. 우이도에서는 문씨(남평) 집안이 바로 그러한 도움을 줬던 것 같다. 정약전도 그러했고 보다 더 후대에 유배 왔던 최익현의 경우도 우이도에 들어가서 처소를 문인주(文寅周)이라는 사람의 집을 사용했다는 기록¹³⁾이 전한다.

표류선과 표류인들을 통해 외국의 문물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도 큰 특징이다. 이강희의 다른 문집인 『운곡잡저』¹⁴⁾에는 우이도에 표류해 온 외국 선박과 표류인을 탐문(問情)한 것에 대한 글들이 등장한다. 문집을 지은 이강희는 당시 우이도에 표류해 왔던 ‘시홍량’이라는 인물에게 「증언시홍량(贈言施洪量)」이라는 글을 지어 보내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우이도는 지정학적 위치상 육지에서 접할 수 없었던 외국의 문물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었고, 간접적으로 주민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강진에 머물고 있었던 이강희가 우이도를 자신의 새로운 학문터전으로 선택하고 옮겨온 하나의 배경이었을 것이다.

13) 최익현, 『면암집』, 「登牛耳小黑山一名口號」.

14) 신안문화원, 『운곡잡저』, 2004.

때문에 우이도라는 공간은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멀리 떨어진 변방이었지만, 폐쇄적인 조선시대에 외국의 문물을 접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특수한 지역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이도 주민 문순득은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세상을 보는 눈과 외국문물에 대한 호기심을 겸비하게 되었고, 「표해록」이 집필되게 한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이는 서남해 도서해양문화가 지닌 독특한 특징으로 이해될 수 있다.

4. 맺음말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유암총서』에 수록된 여러 저술들은 모두가 나라의 큰 정사를 꾀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유배문화와 표류선을 통해 외국 문물을 접할 수 있었던 우이도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만들어 졌다. 도서 해양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섬주민의 전문지식과 실학정신으로 무장한 정약전·이강회의 높은 학식이 어울려져 탄생한 명작이다.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활동을 펴야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역사적인 문화유산을 활용한 선양 사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신안문화원에서 지난 2004년에 발간한 『운곡잡저』와 이번에 새로 발간하는 『유암총서』가 그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